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4월 6일 · 제 351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머스크 · MSC, 5월 북미 걸프항~아시아 신규 서비스 개설
2. 차이나쉬핑 컨테이너 부문(CSCL), '15년 적자 4억 5천만 달러 기록
3. 파나마 운하, 금년 6월 26일 공식 확장 개통
4. 로테르담 항만공사, 법인세 놓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립

| 물류시장동향 |

1. CMA-CGM 그룹, 에티오피아 서비스 강화
2. Mechel, Baosteel사에 석탄 약 100만 톤 공급

| 공지사항 |

1.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





물류정책 · 사업동향

머스크 · MSC, 5월 북미 걸프항~아시아 신규 서비스 개설

- 머스크와 MSC가 참여하는 2M 얼라이언스는 파나마운하를 통해 북미 동안 휴스턴 및 모빌의 걸프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위클리 서비스를 신설함
 - MSC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스타익스프레스(Lone Star Express)로 지정했고, 머스크는 TP18로 명명했으며, 이 서비스는 5월 2일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임
 - 머스크는 4,500 TEU급 선박이 배선될 것이라고 언급함
- 휴스턴항(Houston)과 모빌항(Mobile)은 7월 26일 개장 예정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을 유치하기 위해 컨테이너 설비를 확장하고 있음
 - 휴스턴항은 Bayport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고 있고, Barbours Cut 컨테이너터미널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으며, 터미널 수심을 45피트까지 준설할 예정임
 - 모빌항의 앨라배마주 항만당국은 5월 1일 컨테이너터미널 근처에 인터모달 환적 설비를 오픈할 계획이고, 모빌항 APM터미널은 최근 아웃리치가 22열인 크레인 2대를 발주했음
- Maersk와 MSC는 두 항만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휴스턴에서는 석유화학공장 건설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몇 년 동안 연간 3십만 내지 5십만 TEU의 합성수지 수출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선사들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로는 걸프지역의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Unitcargo Container Line사의 William M. Staib 대표가 언급함
 - 휴스턴항은 현재 파나마운하를 통해 동아시아로 주1회 운항하는 2개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CMA CGM이, 다른 하나는 한진과 공동으로 Cosco가 운영함
 - 새로운 서비스는 걸프지역 컨처리량의 2/3를 차지하는 휴스턴항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Staib 대표는 언급함
- 2M 선사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걸프 서비스 기항지는 칭다오~닝보~상하이~샤먼~엔티엔~부산~크리스토팔~휴스턴~모빌~마이애미임
 - 휴스턴까지 수송일수는 엔티엔에서 26일, 부산에서는 23일이 소요됨
- 새로운 TP18/론스타 서비스의 출범과 함께 선사들은 작년에 시작한 개별 서비스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를 머스크는 TP10, MSC는 Amberjack 서비스라고 명명함
 - 새로운 TP10/앰버잭(Amberjack) 서비스는 신강~칭다오~상하이~부산~파나마~사바나~뉴욕~찰스턴~잭슨빌~프리포트~바하마~파나마~신강을 순회함

자료 : www.JOC.com, 2016.3.31.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차이나쉬핑 컨테이너 부문(CSCL), '15년 적자 4억5천만 달러 기록

-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차이나쉬핑 컨테이너 부문(CSCL)의 2015년도 실적이 총 29억 위안(4억4,860만 달러)의 적자로 최종 확정됨
 - CSCL은 2014년까지 11억 위안의 수익을 냈으나 세계적인 해운시장 불황의 여파로 이와 같은 순손실(net loss)¹⁾을 기록함
 - * 적자 요인의 핵심은 해운 불황에 따른 컨테이너 시장의 화물 운임(freight rates) 하락에 따른 것임
 - * CSCL의 평균 화물 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9%가 하락한 TEU당 4천757 위안을 기록했음
 - 노후선박 해체에 따른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분 2억5,300만 위안까지 합치면 CSCL의 순손실 총액은 3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기간 CSCL의 매출은 2015년 319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1%가 감소했음
 - 정기선사 수익의 또 다른 변수인 연료비의 경우, 저유가 추세에 의해 동기간 35.6% 하락했음
- 동기간 CSCL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780만 TEU를 기록해 3.5%가 감소함
 - 유럽-지중해 운송량은 1백54만 TEU를 기록해 4% 증가한 반면, 태평양 노선은 1백25만 TEU를 기록해 3%가 감소함
 - 아시아-태평양 노선은 1백90만 TEU로서 7%가 하락했으며, 이와 함께 중국 대내 물동량도 3%가 감소했음
 - CSCL측은 이와 같은 운송량 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해 "선박 활용률이 제한적이었고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시장 성장을 제약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CSCL의 총 선박량은 약 89만 TEU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함
 - 영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CSCL의 이와 같은 선박량의 증가는 최근에 성사된 COSCO와의 합병과도 무관하지 않음
 - CSCL은 향후 자사 소유 컨테이너선 및 항만 자산 부문을 중국COSCO홀딩스에 처분하고, 주요 업무는 CSCL을 합병하여 모기업이 된 중국COSCO해운집단²⁾의 임대 및 금융 조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중국COSCO홀딩스는 컨테이너 임대 및 금융 조달 업무를 CSCL측에 이관함
 - 이와 같은 합병후 구조조정 결과, CSCL의 핵심 사업 부문은 컨테이너 제조 및 임대, 선박 임대 등으로 구성된 임대 부문의 다각화, 의료 서비스, 교육 및 신 에너지 서비스 등 3대 부문으로 재조정될 예정임

1) 기업회계상 순손실은 기업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총합계 금액에 비해 비용의 총합계 금액이 더 많을 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임.

2) 중국COSCO해운집단은 2016년 2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 출범. 이후 중국COSCO해운집단 공식 웹사이트는 자사 보유 선박이 1,114척으로 세계 1위, 컨테이너 선박량은 158만 TEU로서 세계 4위라고 말하고 있음. <http://en.coscocs.com/col/col6918/index.html> 참조.



- 향후 중국COSCO해운집단의 투자 부문은 지분 투자, 그룹내 금융 서비스 및 중국보하이은행, 상하이생명보험, 헬렌보험 등의 출자지분(equity interests) 등 외부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중국COSCO해운집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 기업의 성격을 갖는 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자료 : <http://en.coscocs.com/>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파나마 운하, 금년 6월 26일 공식 확장 개통

- 파나마 운하 당국은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 시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파나마 운하 당국(Panama Canal Authority)은 확장된 파나마 운하를 2016년 6월 26일에 개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이 발표는 확장된 파나마 운하 내를 이용할 도선사들을 위한 훈련시설인 Canal's Scale Model Maneuvering Training Facility 개소식 행사에서 언급됨
 - 파나마 운하 확장은 2007년 9월에 착공되어, 거의 10년 동안 52억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운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임
 - 현재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의 공정률은 97% 정도임

파나마 운하 확장 갑문



자료 : www.straitstimes.com

-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13,000~14,000TEU 컨테이너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게 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나마 운하는 5,000TEU 컨테이너 선박까지 이용 가능했으나, 운하 확장으로, 13,000~14,000 TEU 컨테이너 선박(Post-Panamax 선박)이 통항 가능하게 됨
 -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운하의 용량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제 해운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파나마 운하 확장에도 불구하고, 16,000~20,000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은 운하 통항이 불가능한 상황임
- 운하 확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부 항만들의 대형선박 입항관련 항만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함
 -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에 대비하여, 미국 동부 항만들 중 13,000TEU급 등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



안 가능한 항만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 미국 동부 항만 관계자는 Charleston 지역 내 대형선 입항을 위한 수심 준설공사 등은 2020년 정도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 동부 항만들은 대형선박 입항을 위한 항만기반시설 구축 미비로, 상반기에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주로 이용하는 선박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항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pancanal.com, 2016.3.23. / www.mb.com.ph, 2016.3.24. / www.straitstimes.com, 2016.3.24.

이건우 전문연구원
051-797-4784, gunwoo@kmi.re.kr



로테르담 항만공사, 법인세 놓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립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7년부터 네덜란드 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법인세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
 - 네덜란드의 흐로닝언(Groningen), 무어데이크(Moerdijk), 덴 헬더르(Den Helder), 젤란드(Zeeland) 항만공사는 법인세에 관한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로테르담 항만공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힘
 - 로테르담 항만공사에 따르면, 연간 약 6천만 유로(EUR, 약 786억원)³⁾가 법인세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로테르담 항만 전경

자료 : www.joc.com

폴 스미츠 최고재무책임자

자료 : www.portofrotterdam.com

- '15년 네덜란드 입법당국은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함
 - 네덜란드 입법당국은 '15년 성명을 통해 자국 항만은 외국의 항만 및 같은 항만공사끼리만 경쟁을 하고 다른 민간분야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만공사가 법인세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16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항만의 법인세 예외조항을 무효화한다고 밝힘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이와 같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힘
 -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폴 스미츠(Paul Smits) 최고재무책임자는 네덜란드 항만과 직접 경쟁하는 유럽의 다른 항만도 각 국 정부의 보호아래 법인세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네덜란드 항만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힘
 - 또한 그는 유럽연합 내에서 평등성(What's sauce for the goose is sauce for the gander)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히며, 본 법인세관련 결정으로 인해 불공정(Unfair Competition)이 증가하면 안 된다고 밝힘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6.3.22.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oko@kmi.re.kr

3) 1 EUR = 1311.33 KRW 외환은행 2016.4.1. 매매기준율 적용



물류시장동향

CMA-CGM 그룹, 에티오피아 서비스 강화

- CMA-CGM 그룹은 복합운송체제를 이용해 에티오피아를 기항지로 하는 새로운 전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CMA-CGM 그룹은 홍해 익스프레스, 지중해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함께 지부티와 에티오피아를 잇는 복합일관운송체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함
 - 지부티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환적분을 제외하면 내륙국인 에티오피아행이 대부분을 차지함
 - 그 결과, 동 그룹은 지역투자자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내륙지역 여섯 곳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복합운송수단을 개발할 예정임
- 아프리카대륙 동단에 위치하고 홍해와 아덴만에 면한 교통의 요충지 및 무역거점으로 이용되어 온 지부티항은 에티오피아 시장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출해구이기도 함
 - CMA-CGM 그룹은 복합운송체제 및 에티오피아를 새로운 기항지로 활용해 아시아에서 남유럽 그리고 홍해까지 아우르는 루트를 구축할 계획임

자료 : <http://www.gscintell.com>, 2015.3.30.

김민경 연구원
051-797-4777, mkkim421@kmi.re.kr

Mechel, Baosteel사에 석탄 약 100만 톤 공급

- 러시아 최대 자원개발기업인 Mechel은 중국 Baosteel Resources사와 협력 계약을 연장함
- 계약에 따르면, Mechel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aosteel Resources 측에 양질의 석탄 96만 톤을 공급할 예정임
 - 러시아 사하공화국 네룬그리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은 포시에트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송될 것이며, 월단위로 가격책정이 이뤄질 것임
- Mechel은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석탄 · 철강 ·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Baosteel Resources사는 중국 내 석탄제품 수출 점유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www.portnews.ru, 2016.3.31.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4. 1(금) 09:00 ~ 4. 15(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4월29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